

# 건설 하도급공사에서 현금성결제수단 적용의 타당성 분석

## A Feasibility Study on Semi-Cash Payment of Construction Subcontracting

구정산<sup>○</sup> 정성훈<sup>○</sup> 엄익준<sup>\*\*</sup> 구교진<sup>\*\*\*</sup>  
Koo, Jeong-San Jung, Sung-Hun Um, Ik-Joon Koo, Kyo-Jin

### 요 약

전문건설업계는 공사대금의 미 회수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장기어음수급에 따른 어음할인료부담 가중으로 공사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현금성결제수단을 도입하였으나 현재 이행실태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금성결제수단 중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에 대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손익기준점을 통한 경제적인 대금지급수단의 기준안을 제시하고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키워드 : 하도급, 대금지급, 현금성결제수단, 손익기준점

## 1. 서 론

### 1.1 연구의 목적

전문건설업체는 건설현장에서 각 전문분야별로 직접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로서 전국에 3만 5천여 업체가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최근 수년 동안 국내건설업의 전반적인 침체국면 속에서 많은 업체가 공사물량의 축소와 공사대금의 미 회수 등 외부요인에 의해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장기어음수급에 따른 어음할인료 부담 가중으로 공사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1999년 11월에 현금성결제수단을 도입하여 어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이행실태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금성결제수단 중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에 대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손익기준점을 통한 경제적인 대금지급수단의 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방법에는 어음과 현금 그리고 현금성결제수단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방법 중 현금성결제수단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특히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2001~2003년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건설하도급공사대금 지급현황을 분석하고,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등록된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통하여 현금성결제의 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사례조사를

통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의 타당성 분석을 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 이행시 손익기준점을 통한 경제적인 대금지급수단의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하도급 및 대금지급관련 예비적 고찰
- (2) 현금성결제수단의 운영체계와 전화면담을 통한 이행실태 및 분석
- (3)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의 타당성을 분석
- (4)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으로 하도급공사 대금지급시 경제적인 대금지급수단의 기준안 제시
- (5) 손익기준점에 대한 경제성 분석

## 2. 건설하도급 대금지급관련 예비적 고찰

### 2.1 하도급 자금사정 실태

#### (1) 하도급 자금사정의 변화실태

1998년 경기불황사태 이후 국내경기의 침체와 금융개혁으로 인하여 자금유통이 경색되어 전문건설업계로서도 자금사정이 원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경기불황사태가 점차 진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자금사정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2002년까지는 전년대비로 개선되었다는 업체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자금사정이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다고 하는 업체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공사물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지급지연, 어음할인곤란, 원도급자 부도 그리고 대출과 같은 건설하도급의 고질적인 문제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진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자금사정의 해소방안으로 공사 활동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현금지급비율의 확대와 이를 위한 직불제의 확대 등이 제시되

\* 학생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학사과정

\*\* 일반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겸임교수

\*\*\* 일반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조교수

고 있다.

(2) 하도급 공사대금의 수령형태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은 착수금, 기성금, 준공후 하자담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은 적기에 지급·수령되어야 시공활동을 원활하게 보장하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공사의 공사대금은 현금결제보다 어음결제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표 1, 표 2 참조)

표 1 원도급 공사대금의 수령형태

구 분	현금		어음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1) 20% 미만	44	8.0	46	19.7
(2) 21~40%	41	7.4	28	12.0
(3) 41~60%	64	11.6	65	27.8
(4) 61~80%	41	7.4	53	22.6
(5) 80% 초과	362	65.6	42	17.9
합 계	552	100.0	234	100.0

주 2003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표 2 하도급 공사대금의 수령형태

구 분	현금		어음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1) 20% 미만	99	18.5	63	13.3
(2) 21~40%	98	18.4	90	19.0
(3) 41~60%	136	25.5	148	31.3
(4) 61~80%	55	10.3	78	16.5
(5) 80% 초과	146	27.3	94	19.9
합 계	534	100.0	473	100.0

주 2003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2003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공사대금의 어음결제비중은 어음지급비율이 원도급보다 하도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음지급비율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원도급의 경우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도급의 경우도 어음지급비율이 축소되고 있다. 공사대금의 어음지급비율이 축소되는 추세는 바람직한 경향이기는 하지만, 이 추세가 공사량의 대폭적인 감소현상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일 때는 어음지급비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2 하도급 공사대금의 어음지급실태

전문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은 근본적으로 공사수주량의 감소가 최대 요인이다. 그러나 기존의 공사대금이 적기수령이 안되거나 장기어음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전문건설업체의 자금경색현상은 더욱 악화된다. 또한 원도급자의 기업부도는 직접적으로 하도급자에게 전가되어서 연쇄적인 기업부실을 초래하는 일이 적지 않다. 1998년 이후 경기불황 사태 직후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공사는 물론 원도급공사를 계약·이행하고서도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수취어음의 부도로 기업부실을 감당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였다. 공사대금의 어음 현금화 처리방법과 기업운영자금의 조달원천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표

4 참조)

표 3 공사대금조 수취어음의 현금화 처리방법

구 분	업체수	구성비(%)
(1) 시중은행 할인	344	49.5
(2) 제2금융권 할인	57	8.2
(3) 사채시장 할인	51	7.3
(4) 자재비등 유통처리	95	13.7
(5) 만기결제 처리	148	21.3
합 계	695	100.0

주 2003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표 4 기업운영자금의 조달원천

구 분	업체수	구성비(%)
(1) 사채시장	17	2.2
(2) 금융기관 차입	504	64.5
(3) 친지의존 차입	150	19.2
(4) 회사채 발행	2	0.3
(5) 자본금 증자	42	5.4
(6) 기타	66	8.5
합 계	781	100.0

주 2003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공사대금조 수취어음의 부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음 부도와는 달리 공사대금을 장기어음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 이의 현금화 실태를 살펴보면 만기결제나 유통처리보다 비싼 할인료를 부담하면서 중도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또한 할인료만큼 전문건설업체의 공사채산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며, 그 만큼 기업자금사정을 열악하게 하고 있다. 자금조달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수령받고 있지 못하지만, 노무비의 경우는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요자금을 적기충당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나 친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어 진다.

이러한 전문건설업체의 자금조달원천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공사대금의 현금수령관계가 먼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3. 현금성결제의 실태 및 타당성 분석

3.1 현금성결제의 이행실태 면담조사

(1) 면담조사 개요

본 면담조사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대상은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토건업체 중 2003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1~100위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등록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200개의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위한 조사기간은 2004년 3월부터 4월까지 1개월이다. 본 면담조사는 현금성결제의 이행도와 이행할 경우의 장점,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면담조사 결과 분석

① 일반건설업체의 이행실태 분석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을 통한 현금성결제보다 직접 100% 현금 지급이나 어음과 현금의 지급하는 방법이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금성결제는 나머지 34%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기업구매카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 지급하는 업체도 응답 업체의 10.9%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직접현금으로 100% 지급하는 업체는 30.7%였으며, 현금과 어음을 같이 사용하여 지급하는 업체가 3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5 참조)

표 5 하도급 공사대금지급 형태

구 분	업체수	구성비(%)
(1) 기업구매카드	15	16.5
(2) 기업구매자금 대출	10	10.9
(3) 외상매출채권담보	6	6.6
(4) 직접현금(100%)지급	28	30.7
(5) 현금과 어음	32	35.3
(6) 기타(무응답)	9	0
합 계	100	100

하도급공사 대금결제시 현금성결제의 미도입 요인을 살펴보면 이러한 방식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응답업체의 38.3%로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관례대로 하다보니 이러한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인 경우가 36.7%로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구매자금 대출결제방식을 이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부담때문에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회사의 내부사정상 도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 16.7%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금의 흐름이 노출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 분석된다.(표 6참조)

표 6 현금성결제의 미도입 요인

구 분	업체수	구성비(%)
(1) 어음대출수단에 대한 체제이해 부족	28	46.7
(2) 추후 계획 중	17	28.3
(3) 이자에 대한 부담	5	8.3
(4) 기타(회사의 내부사정 때문에)	10	16.7
합 계	60	100

본 조사를 통하여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결제수단의 이행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응답업체의 34%만이 현금성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을 이행하고 있었다. 이는 현금성결제수단을 계획 중에 있는 미이행업체의 28.3%를 감안하여도 응답 업체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결국 현금성결제수단의 도입이 1999년부터 약 6년정도 지났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아직 적용

정도가 낮고, 인지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② 전문건설업체의 이행실태 분석

공사대금의 지급의 형태는 크게 현금, 어음(실어음, 전자어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의 대금수급형태를 분석해보면 하도급공사대금의 100%를 전부 실어음이나 전자어음의 형태로 지급하는 업체가 14.3%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건설업체와 내적 계약관계에 의해 100% 어음만 지급받은 관행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100% 현금지급 받는 기업은 18.1%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수급형태는 응답업체의 45.6%로 현금과 어음의 수급이었다. 이는 건설공사대금지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현재는 어음의 비중보다 현금의 비중이 커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성결제를 통해 대금을 수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2.0%로 아직 현금성결제를 통한 대금수급은 미미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전문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수급실태

구 분	업체수	구성비(%)
(1) 현금(100%)수급	33	18.1
(2) 현금과 어음으로 수급	83	45.6
(3) 어음(100%)수급	26	14.3
(4) 현금성결제(일부) 수급	40	22.0
(5) 기타(무응답)	18	0
합 계	200	100

현금성결제에 대한 인지상태를 조사해본 결과 응답업체의 77.5%가 현금성결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그동안의 대금수급에 있어서 관행이 아직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응답업체의 22.5%가 아직 현금성결제의 체제에 대해 잘 모르다고 응답해 일반건설업체와 함께 교육이나 홍보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되어진다.(표 8 참조)

표 8 현금성결제에 대한 인지(認知)상태

구 분	업체수	구성비(%)
(1) 잘 모른다.	32	22.5
(2) 알고는 있다.	110	77.5
합 계	142	100

본 조사를 통하여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결제수단의 이행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대금수급은 일반건설업체의 대금지급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공사대금의 수급형태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금지급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2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의 타당성 분석

본 장에서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의 타당성분석에 한정하였으며 실제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업체의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실시하였다.

(1) 일반건설업체(T업체) 측면

T건설회사의 하도급 대금지급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을 적용하고 있었고, 하도급 업체에게 S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그림 1 참조) T건설업체의 경우에는 현재 부채 비율이 56%정도로 자금사정이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S은행에 대금 결제시 어음의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선입금을 하고 있었다.1) T건설회사는 1999년 이후 하도급법의 개정2)으로 인하여 하도급법 준수와 금융비용의 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해 현금성결제수단을 도입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 건설회사는 법을 준수함으로써 얻는 인센티브 중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해서 시행하기 시작했다. 결제시스템의 변화를 토대로 얻어지는 이득 외에도 기업이미지의 상승효과라는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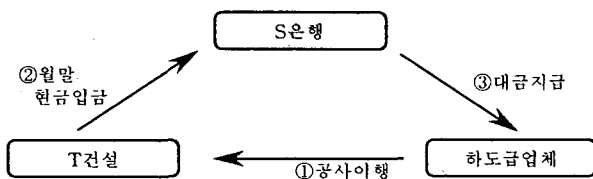


그림 1 T건설회사의 하도급 대금지급 과정

T건설회사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의 이행으로 얻는 경제적측면의 이점은 세액공제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00억원의 공사대금 지급시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을 이행하여 얻는 세액공제는 경상이익 42억원이라 가정할때, 법인세금이 세금계산3)에 의하여 11억 7백만원 이지, 위 수단이행으로 법인세의 10%인 1억 1천백 7십만 원 한도내에서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표 9 참조)

표 9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 이행 전후 (단위: 억원)

구 분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	
	이행전	이행후
하도급공사대금결제액	700	700
영업이익	42	42
금융비용	0	0
경상이익	42	42
공제세액(최대)	0	1.107
법인세	11.07	11.07
당기순이익	30.93	32.037

주 :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뺀 값이다.  
 경상이익은 매출액의 약 6%로 가정  
 (2003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전체통계)

- 1) 일반적인 업체의 경우에는 은행에 선이자를 제외한 대금을 대출받아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2) 1999.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의 현금지급을 의무화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교부불금지
- 3) 법인세는 경상이익의 27%(1억까지는 15%)이다.

(2) 전문건설업체(W업체) 측면

W전문업체의 대금수급형태는 현금(현금성결제 포함), 전자어음, 실어음의 형태로 수급하고 있었는데, 위 T건설회사와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의 형태로 S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수급하고 있었다. W전문업체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으로 대금수급한 경우와 일반적인 현금, 어음의 비중으로 대금수급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전자의 경우 자재의 현금구매로 2~3%의 자재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업체의 경우 100억 공사일 경우 자재비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약 25억원 정도가 되는데, 현금으로 자재비 결제시 25억원의 2~3%인 약 7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현금수급비중이 일반적으로 40%로 가정할 때, 노무비는 100% 현금지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금수급이 노무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어음수급 일부를 할인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으로 대금 수급시 경제적 자금 확보를 통하여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차원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도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 분석된다.(표 10 참조)

표 10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 수급전후 (단위: 억원)

구 분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	
	수급전	수급후
공사금액	100	100
노무비	75	75
자재비	25	25
자재비지급수단	어음	현금
자재비할인	0	0.75

4. 손익기준점 계산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

본 장에서는 결제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액과 세액공제액이 같아지는 점을 손익기준점이라 하고, 손익기준점의 계산 프로세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손익기준점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4.1 손익기준점 계산 프로세스

먼저 하도급공사대금지급 결제액이 현금성결제액(현금, 대출금액)과 어음결제액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면 (1)번 식을 얻을 수 있다.(T : 하도급공사 대금지급 결제액, x : 현금결제액, y : 대출금액, z : 어음결제액)

$$T = x + y + z \dots\dots\dots (1)$$

그리고 세액공제액 계산식 (현금(x)+대출금액(y)-어음결제액(z))×0.003=세액공제액(k)에서 (2)번식을 유도할 수 있다.(k : 세액공제액)

$$x + y - z = k/0.003 \dots\dots\dots (2)$$

(1)과 (2)의 식에서 세액공제액은 법인세의 10% 이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액공제액(k)을 최대세액공제액(Mk)으로 가정하게 되면 어음결제액(z)을 산출할 수 있고 현금성결제에 해당하는 현금(x)+대출금액(y)의 값을 알 수 있다.

또한 최대세액공제액은 법인세의 10%로 계산하고 법인세는 경상이익의 일정요율로 계산한다. 최대세액공제액이 산출되면, 대출이자액에 최대세액공제액을 대입하여 식 (3)에 의하여 대출금액(y)값을 산출할 수 있다.(I : 이자액, 평균대출이자율 : 6.5%/년, 평균대출일 : 90일)

$$I = y \times (0.065 \times 90/365) \dots\dots\dots (3)$$

대출금액(y)값 산출에 따라 (1)식에 의해 현금(x)값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공사대금 결제수단에 대해서 현금(x)과 대출금액(y), 어음결제액(z)의 기준점인 손익기준점을 산정할 수 있다.

세액공제와 대출이자에 같아지는 손익기준점은 (1)식과 (2)식에 의하여 그림 2의 그래프에서 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무수히 많은 점이 있다. 그 점들 중 최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은 그림 2에서 원형점을 기준으로 하단부 구간인데, 하단부구간은 법인세 10%한도를 넘는 구간이다. 따라서 원형점이 일반건설업체에서 경제적인 손익기준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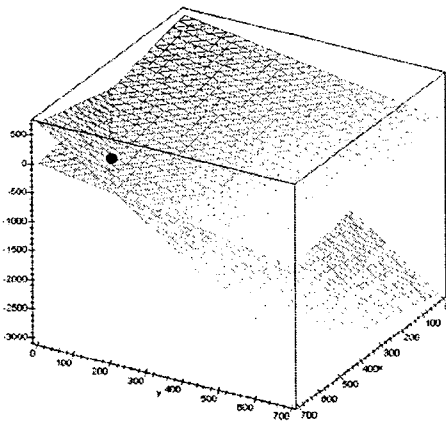


그림 2 세액공제=대출이자 그래프

#### 4.2 손익기준점 계산 프로그램(spread sheet)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수 기입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작업을 통해 쉽게 손익기준점을 구할 수 있다. 그림 3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MS Excel을 통해 프로그래밍한 작업시트에 총공사금액, 하도급공사금액, 경상이윤율등을 기입하여 프로젝트에 대해 세금공제액과 이자액이 같아지는 현금결제액과 대출결제액 그리고, 어음결제액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금액	비율
총공사액	700.0	
하도급공사대금결제액	140.0	
경상이익율	10.0%	
경상이익	60.0	
법인세	16.1	세액공제액
최대법인세공제액	1.500	16.1
평균대출이자율	0.065	어음결제액
대출기간	90.0	42.0
대출이자	1.809	

그림 3 손익기준점 계산 프로그램

#### 4.3 전문건설업체의 손익기준점에 대한 경제성 분석

##### (1) 일반적인 형태(현금+어음)의 대금 수급시

하도급공사 대금(700억원 가정)의 20%인 140억원을 철근콘크리트 공사비라 하면 그 중 70%인 98억원은 노무비로써 현금으로 수급해야 하는 부분이다.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현금과 어음의 형태로 받을경우 현금과 어음의 비중은 보통 4대6의 비율이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56억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하도급업체는 노무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98억원과 56억원의 차액인 42억원에 대한 금액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해서 금액을 충당하고 있다. 그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간과 해당업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전자어음의 경우 4~6%가 적용된다. 또한 42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42억 2천만원을 할인(할인율4%, 어음만기일 60일기준)해야 되며 이때 할인료는 약2천만원으로 이 금액은 하도급업체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 (2) 손익기준점에 따른 대금 수급시

위와 같은 가정으로 손익기준점의 비율에 따라 대금수급시 현금수급비중은 123억 6천만원이고 어음수급비중은 16억 4천만원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앞에서 가정한 것처럼 노무비는 현금으로 9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현금수급비중과 노무비의 차액인 25억 6천만원의 현금이 노무비를 지급하고 남은 잉여금액이 되고 이 잉여 현금은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 자재를 현금으로 구매할 시에는 2~3%정도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기때문에 잉여 현금액 25억 6천만원으로 자재구입시 약 8천만원(자재할인률 3%적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 4.4 경제성 분석 프로그램(Spreadsheet)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수 기입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작업을 통해 쉽게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림 4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래밍한 sheet에 총공사금액, 하도급공사금액, 경상이윤율등을 기입하여 프로젝트에 대해 세금공제액과 이자액이 같

아지는 현금결제액과 대출결제액 그리고, 어음결제액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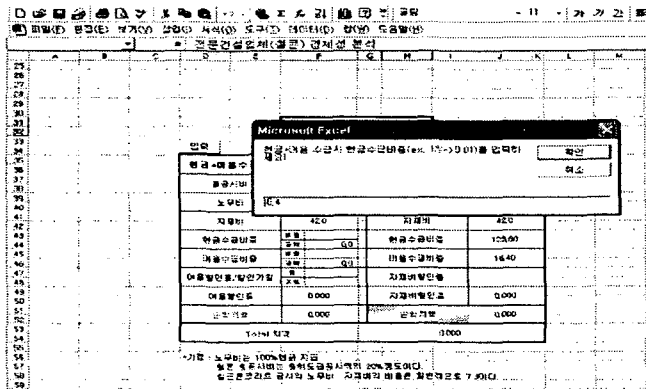


그림 4 경제성 분석 프로그램

## 5. 결 론

본 연구는 건설하도급 공사대금지급에 있어서 어음지급에 관련해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에서 1999년 이후 시행해온 현금성결제수단 중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에 대해 타당성을 분석하여 하도급대금지급수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데 대한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조사 및 분석결과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일반·전문건설업체측면에서 정성적·정량적 이익을 각각 얻을 수 있었다. 일반건설업체에서는 세액공제혜택과 서면실태조사 면제, 하도급벌점감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하도급관계 등을 이룰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안정적인 공사대금 확보와 현금수급비중에 따른 공사비 절감효과, 경쟁력 강화 등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수단을 통해서 창출되는 경제적인 효과를 중점으로 분석한 결과 1000억원 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해당하는 120억원 공사에서 약 1억원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현금성결제수단중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 적용시 경제적인 대금지급수단의 기준안 제시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현금성결제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사정이 건실한 업체위주의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

후 중소기업의 현금성결제 적용방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공정거래위원회, “어음대체수단” 보고서, 2003
2. 권중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2003
3. 김리상, “건설하도급거래의 불공정 실태 및 공정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4. 김병두, “국내건설업의 하도급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5. 김정현, “우리나라 건설하도급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6. 김종범, “건설 하도급 불공정 대금지급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7.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2001~2003
8. 법제사법위원회, “어음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1998
9. 송정원, “하도급 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나무와샘, 2000
10. 유영재, “국내건설하도급 계약상 점검항목 선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1. 이승연,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지급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00
12. 이의섭, “건설 하도급 계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13. 정재수, “국내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Abstract

According to subcontracting company's capital circumstance change for the worse by price regionalism and long bill supply and demand, bill principal parts settlement means were introduced. But, performance disgrace is inactive except some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senting loss and gain datum point that is standard of economical price disbursement means at construction subcontracting construction price settlement connection corporation purchaser gold loaning means application and supply basis data. economical gains by high cash specific gravity

**Keywords :** Subcontract, Price Disbursement, Semi-Cash Payment, Loss and Gain Datum Point